

치과 외래에서 가능한 소수술

Ⅲ. 하악골융기(Mandibular torus) 제거술

하악골융기(Mandibular torus)는 주로 하악 소구치나 구치부의 설측 피질골상에 둥근 구근모양(bulbar form)의 골성융기가 단독으로 혹은 여러개가 융합된 형태로 발생하는 일종의 외골증(Exostosis)으로 대개 양측성으로 발생하며 융기된 골의 형태와 거의 일치하는 외형의 얇은 구강점막으로 덮혀 있어 촉지시 평범한 골감이 느껴지며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

평소에는 특기할 임상적 증세를 느끼지 않으며 종양성질환이 아니므로 특별히 제거할 필요는 없으나 대개 Partial denture나 full denture의 올바른 장착을 방해하는 경우와 골성돌출에 따른 암에 대한 공포를 환자가 느낄때 제거할 필요가 있다.

제거하는 술식은 매우 간단하여 먼저 무치악의 경우에는 치조정상외의 점막상에, 치아존재지에는 설측치경부를 따라 골융기의 노출시 조직이 파열되지

않을만큼의 충분한 길이로 절개를 가한후(그림①참조) 설측피판을 Periosteal elevator로 제끼고(그림②참조) torus상부와 정상골면과의 경계상에 fissure bur를 사용하여 약 2mm 깊이만큼 torus 직경을 따라 홈을 형성한후 Single beveled Osteotome 으로 살짝 malleting하여 torus를 절제한다(그림③참조) 이때 너무 센힘이 가해져 osteotome이 깊숙히 박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또한 절제된 골편이 조직내로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절제된 골편을 제거한후 설측 피질골면의 날카로운 부분등을 소독된 denture bur나 bone file로 잘 다듬고(그림④참조)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세척한 후 통법에 따라 절개창을 봉합한다(그림④참조). 이때 clear-acrylic resin splint를 미리 제작했다가 수술후 장착해주면 창상의 치유과정을 관찰할수 있고 Sulcus depth를 유지할수 있으며 Dead Space를 방지하는 등의 여러가지 잇점을 얻을수 있다.

그림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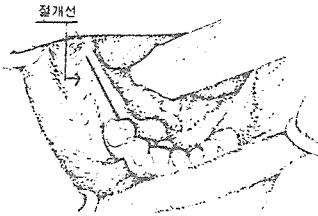


그림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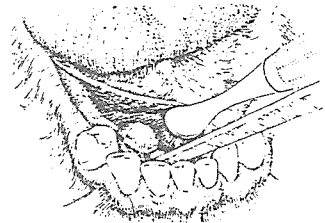


그림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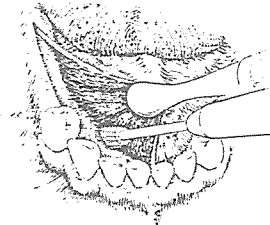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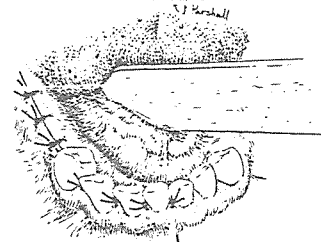


그림 ④



서울특별시 인정 제12호

아세아치과기공소

ASIA DENTAL LABORATORY

대표 이홍규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115번지

☎ (763) 8559 · 7518 · 4488